

지금으로부터 십여년전 초가지붕의 시골 풍경을 그리다가 워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화가가 있었다. 그림 속의 초가집풍경이 김 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98년도에 이런 일들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표 때문에 사회개혁 모두를 날려보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Free style

이번주 주제
옷

◇Free style은 이론화를 지향하기보다 감성으로서 깨어진 대학문화를 맞춰 나가려는 기획 테마신문입니다.
◇Free style의 격주 게재되는 인물포커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2

1997년 11월 10일 월요일

테마신문

대학주보

내가 나인가 내 옷이 나인가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팅하는 날. 무슨 옷을 입지? 어제 잘때 부터 고민이었다. 수업이 많은 날이라 편한 옷차림이 좋긴 한데. 멋지게 입고 다른친구들보다 튀어보이고 싶기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을까? 에이 그냥 바지를 입고 나가? 그럼 너무 평범해 보일 텐데. 어휴 뭘입지?

무슨 옷을 입을까를 두고 하는 고민. 일상적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다. 패션은 전략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옷은 현대 사회에 있어 일종의 언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작은 만남에서 취직시험 면접이나 입학시험 하듯 못해 이성간의 만남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옷차림인가는 상대방이 자신을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처음 인식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까지 있으니 말이다.

의상 사회심리학자들이 "의복은 제2의 피부"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을 것이다. 의복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는 신체적 자아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의복이 개인의 정체성 대변못해

그렇다면, 옷, 광범위하게 걸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모습-외모-에 관련된 자아개념은 어떻게 나누어 질까? 일단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취향과 개성과 체형에 따라 옷을 선택한다.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인식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달리 말해 표현한 나와 나에 대한 인식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다면 문제는 좀 복잡해진다. 이 때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우위에 둘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더욱 중요시 할까? 재미있는 것은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적합한 쪽으로 옷을 입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인식되는 자아는 대체로 사람들이 외모나 의복을 기초로 하여 얻어낸 피이드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

유행도 집합적인 옷입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물론 유행이 사회규범과 같은 강력한 제어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은 말그대로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한

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되고 유행에 뒤쳐진 옷차림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 데에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그 스타일을 받아 들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스타일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상황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시대, 현대사회에서의 유행이란 자연적인 흐름일때도 있지만 때로 상업적으로 조장된 거품일 때도 있고 몇몇 스타시스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미지라는 특급열차는 본질적인 대상이 없이도 사람들에게 환상의 세계를 구경시켜줄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처럼 예뻐지고 누구 머리스타일 따라하기로 점철된 패션 잡지와 유명드라마가 한편만들어 질 때 마다 폭생겨나는 누구누구 귀걸이 목걸이들....

넘쳐나는 브랜드와 각각 표방하는 바가 천차만별인 브랜드 이미지. 한 때 무척이나 각광 받았던 외국 청바지 브랜드가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적게 만들어 비싸게 판다는 마케팅전략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옷의 형태나 색깔로 자신의 계급적 우월성

을 인정받았던 봉건사회 이후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 받을 길이 없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에서 브랜드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의 옷들은 비정상적으로 상표를 강조하고 옷 전면에 상표를 표기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이제 안전이나 생존의 욕구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소속감이나 자아정체성의 욕구를 지니게 된 우리사회의 경제적 발전상에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순전히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현대판 계급의식에 분노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다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하는 경향은 분명 짙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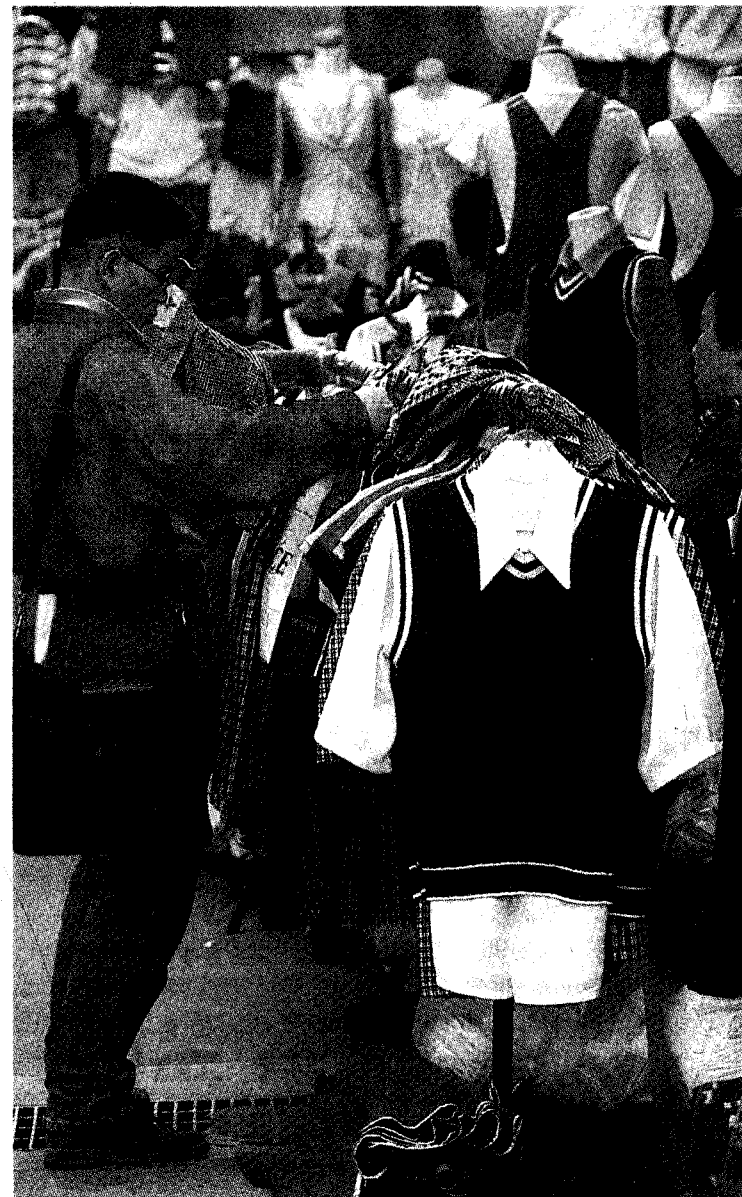
그것은 학생이면 학생다운 옷차림을 하려던가, 하는 식의 지지부진한 발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대학생이 가지는 아주 특수한 위치-성인이면서 여전히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한다-가 별로 떼땀치 못한 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지의 허상따위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기에는 너무나 푸른 젊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수정 기자〉



□신세대 패션 거리 인터뷰

“난 유행 잘 따르는 센스있는 사람”



“남들도 그러니까요. 전부 뽀족한 구두를 신는데 저만 네모난 거 신을 수 있겠어요? 뒤지기 싫은거죠. 나는 유행을 잘 따라가는 센스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자부심의 표출이죠.”

박봉정(20세, 대학생)



“이 신발 멋지지 않아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확실하게 튀고요. 사람들이 모두 한번씩은 쳐다보니까요. 주목받는거 나쁘지 않죠. 전 평범한 게 싫거든요.”

박재희(23세, 대학생)



“모두 똑같은 모습들을 보면 하가나요. 전 누군가 저더러 연예인 패션처럼 입었다라고 하면 다시 그렇게 코디하지 않죠. 자존심인지도 몰라요. 저만의 유행을 만들고 싶거든요.”

김한주(23세, TEX 디자이너)

〈김현중 기자〉